빌 게이츠 "韓, 글로벌 보건 분야 선도역할 할 적임자"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 협력 MOU 체결 위해 韓 방문"
"韓, 백신 제조 역량·R&D 전문성 등 코로나 분야 선도"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한국이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으로 국회를 방문해 "한국은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 혁신적인 민간 부문, R&D(연구개발)전문성, 새로운 바이오 인력 허브 등 코로나19와 진단 검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다자주의 글로벌 노력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는 굉장했다. 최근 글로벌 보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는데, 코백스(세계 코로나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에 2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감염병 퇴치펀드 ACT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외국 원조 조금, 그리고 각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한 세대 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할 때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원조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밟아온 같은 발전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돕고 있다"고 부연했다.

빌 게이츠는 결핵, 말라리아, HIV 등 감염병 퇴치를 위해 글로벌 보건 단체의 노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감염병으로부터 4400만명을 구했음을 강조했다.

감염병혁신연합(CEPI·세피)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개비) 등 단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우리가 협력을 통해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이러한 대비책 마련과 예방에 앞장 설 수 있다고 했다.

빌 게이츠는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은 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다"라며 "글로벌 보건 안보 증진, 건강형평성 격차 해소 및 중저소득 국가의 감염병 퇴치 노력 지속을 위한 협력에 관한 MOU"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보건 위기인 지금은 저희 재단에서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좋은 적기"라며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보고에 대한 아이디어와 재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보건에 있어 이번 세기에 달성한 성공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이 이러한 기관에서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더 확대된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아마비, 홍역과 같은 질병을 퇴치할 수 있고,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 아래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빌 게이츠의 이번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빌 게이츠 이사장은 세상을 바꾼 사람"이라며 "윈도우와 마이크로소프트로 iCT 세상을 열었다. 2000년 빌 앤 멜린다 재단을 설립해 사회 환원을 선도했고 2010년에는 더 기빙 플레지를 설립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키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 소아마비, 아동 건강, 농업 문제 등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빌 게이츠 이사장의 노력은 종횡무진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팬데믹 극복을 위한 활약도 눈부시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백신 개발에 주목하고 헌신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팬데믹 초기부터 백신 개발을 호소하고 앞장선 빌 게이츠 이사장의 혜안은 참으로 돋보이는 것이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연설에 앞서 진행한 빌 게이츠 이사장과의 환담에서도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격언이 말해주듯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보건 연대와 협력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강신업, '이준석 제명' 청구 윤리위에 제출…"내부총질만 계속"

'김성진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 李 제명 신청서 국힘에 제출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청구 신청서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이 대표의 제명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대표 제명 청구를 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찾았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규 윤리규정 20조와 21조 6항을 언급하면서 "(당규에 따르면) 실정법 위반과 분탕질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징계를 받은 자가 계속해서 분탕질하면 더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면서 "더 중한 징계는 당연히 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제명 청구 이유를▲실정법 위반 ▲도덕성 문제 ▲정치·정책 실패를 들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상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인으로서의 잘못을 저질렀고, 성 상납뿐 아니라 수 차례 술접대와 물품 접대를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죄책을 저질렀고, 이를 덮기 위해 비서실장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방송하던 날 대전으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가 국민의 건전한 도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라는 말을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하고 윤 대통령을 도와 정치하는 사람을 폄훼했다"며 "소위 맞짱뜨는 방법으로 자기 지위를 높이고 자기 관종을 실현함으로서 더러운 정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정치·정책실패를 가져왔다"면서 "당 대표 지위 속에서 야당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여당이 되고 나서도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의원 등 적폐 세력들의 비판을 한 적이 없으며 계속 내부총질만 했다"면서 "상대 당에 대해선 관대하면서 자기 당에는 계속 분탕질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최고위가 해체되고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면서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이준석 당 대표'라고 쓰고 있다. 쫓겨난 축출된 당 대표인데 계속해서 당 대표라 쓰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이슬 기자

尹 "내실있게 대통령실 변화줄 것"

교육비서관 교체 쇄신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인적 구성 변화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전격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보냈다.

권 비서관 교체는 박순애 전 장관이 촉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및 번복 논란 등 교육 개혁 및 정책에 혼선을 빚은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출근길에 대통령실 인적 변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휴가기간부터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내실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실 쇄신을 공식화 했다.

윤 대통령 휴가 당시는 '학제개편'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때로 윤 대통령이 교육비서관 교체를 그때부터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홍보, 정무라인을 보강하거나 홍보-정무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정무수석 등 참모진 교체는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도 전해진다.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의를 빚은 관련 조직 인사는 교체하되 업무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명분으로 참모들은 교체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선 아직 어떤 것도 전해들은 바 없다"며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나"고 했다.

김재환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